

자문화기술지의 학문적 적용과정과 무용 자문화기술지 방법론 연구

고 현 정*

목 차

Abstract	III. 무용 자문화기술지
I. 서론	1. 무용의 경험적 특성과 자문화기술지
II. 자문화기술지	2. 무용과 언어적 해석
1. 자문화기술지의 이론적 관점	IV. 결론
2. 자문화기술지의 유형	참고문헌
3. 자문화기술지의 방법론적 비판과 가치	

Abstract

A study on academic application processes of autoethnography as a methodology of practice-based research in dance

Go, Hyeon-jeong · HanYang University

There are some raising questions about reliability to derive the most proper information in a research thesis when a researcher researches or investigates other's experience. It is difficult for a researcher to generalise other's knowledge groundwork because it obtains through one's very own personal experience. Neither comparable nor definable one's inner insight, which gains his/her individual lived experience, because it contains various values. In contrast, research into researcher his/herself, it enables him/her to explore the subject in depth and authentically. Therefore, it is argued that autoethnography, which uses researcher his/herself as a major subject

* 한양대학교 강의교수

논문투고일: 2013. 1. 20. 심사일: 2013. 2. 20. 게재확정일: 2013. 3. 8.

as well as data of the research, is able to recognise the importance of one's own lived experience as a social contexts in a broad perspective. In this article, it focuses on practice-based research, which blurs research and researched based on ontological thought, and analyse autoethnography to explore the validity for research into one's individual self. This article argues,

Firstly, autoethnography is an emerging methodology in that it is necessary to describe its brief theoretical background as well as methodological value and criticism.

Secondly, it is said that dance is mostly, composed of a dancer's inner experience, which is difficult to define and depict, and therefore, it argues the suitability of autoethnography as a methodology for dance.

Finally, it analyses the moment of arising different perspectives when the researcher's subjective and personal thought transform into very objective text, and through this mixing process it investigates the validity of self-research.

It is still very rare to use autoethnography as a methodology in academic dance field, even though it already emerged practice-based research which is researcher analyse his/her own work. Therefore, the essential aim of this article is explore the value of research into researcher's his/herself to prov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practice-based research through autoethnography.

key words: autoethnography, practice-based research in Dance, research methodology,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주요어: 자문화기술지, 무용 실기토대 연구논문, 연구방법론, 질적연구방법론

I . 서론

학술연구에서 질적연구방법은 긴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초기에는 질적연구의 정당성과 진실성, 객관성과 일반화의 부족으로 실증주의 과학논문의 비판을 받아왔으나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질적연구는 더욱더 주관화가 뚜렷해지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주관적 해석에 점차적으로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무용분야에서는 주관적이고 창조적인 실기를 논리적 결과물과 같은 맥락으로 존재론적 관점에 바탕을 두는 실기 토대로 하는 박사연구논문practice-based research이 생겨났고 연구자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분석하고 연구한다. 사실 질적연구의 한 가지 연구방법론인 전통적인 문화기술학 ethnography은 일반적으로 다른 문화와 사회의 사람들을 많은 시간을 두어 관찰하여 연구하며 ‘타인’에게 초점을 두어 연구하는 하나의 객관적인 학문이다. 그러나 니콜라스 홀트 Nicholas Holt, 2003는 문화기술지적 논술방법은 연구자가 타인을 연구하고 이해하면서 연구나 각자의 살아온 문화와 경험을 바탕으로 쓰기 때문에 고도로 개인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이 대두되면서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 라는 연구방법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실기를 토대로 하는 박사연구논문이 연구자 본인의 작품을 연구 분석하는 것과 같이 연구자 자신의 자전적 데이터를 가지고 탐구하는 질적연구 방법이다.

질적연구방법이 처음 생겨났을 때 양적연구방법의 가치여부에 대한 비판을 받아오고 그 정당성 확립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듯이 실기를 토대로 하는 연구방법 또한 그 가치와 타당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실기토대의 연구논문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의 정당성을 주장할 방법론적 논술이 무용분야에서는 희박한 실정이다. 자문화기술지는 이러한 문제에 답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한 가지 연구방법론으로 실기를 토대로 하는 연구와 마찬가지로 질적연구방법론에서 기존의 연구논문 방법론의 전통적인 특징인 정당성과 신뢰성 입증의 방법들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도전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실기토대의 연구논문을 위한 효율적인 연구방법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연구방법론의 한가지인 자문화기술지를 소개하여 그것의 학문적 적용과정을 논의하고 나아가 무용분야에서 자문화기술지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실기토대 연구논문의 가치의 정당성 확립을 돕는데 그 목적을 두고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한다.

학술논문에서 혁신적인 안건인 실기를 토대로 하는 연구에서는 기존의 객관적인 합리화에 대한 학술적인 욕구를 일인칭 묘사가 주를 이루는 작품이나 공연 등 더욱 주관적인 연구결과를 위한 요구와 주장으로 치환 되었다. 이러한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실기작품을 논리에 도전하는 접근방법으로 보았던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은 실기위주의 연구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러한 창조적으로 만들어 내는 복잡한 접근 방법을 논리와 대등한 발판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전통적인 연구논문의 객관적인 결과물과 실기토대의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관적인 접근방식이 대등한 위치에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Freeman, 2010:195-197 재인용). 이러한 광범위한 아이디어의 채택은 공연 후 반영된 인식론적인 배경보다는 특정 공연 순간의 존재론을 탐구하는 새로운 길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자문화기술지는 어떠한 연구의 결론을 생산해 내는 것 보다는 그 연구의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실기토대의 연구논문과 존재론적 가치가 일맥상통하며 그를 통하여 연구자 - 무용에 관한 연구라면 - 즉 무용수 혹은 안무자, 무용 그리고 사람사이의 어떠한 접점을 보여줌으로써 미시적으로는 연구자 개인의 심층 있는 연구를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문화, 정치, 교육 등 그 연구자가 살아왔던 사회의 전반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실기를 토대로 하는 연구방법과 자문화기술지는 앞서 논의되었듯이 인

식론에 무게를 두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에 내는 전통적인 실증주의 자연과학 논문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자의 논문은 전통적으로 객관적인 정당성이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자료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결론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이 논문에서는 실기를 토대로 연구하는 논문과 ‘나’를 주제로 하여 연구를 하는 방법인 자문화기술지를 사용한 연구방법의 중요성과 또 거기에 대한 정당성의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과연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1990)가 말하는 주관성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완벽한 객관적인 ‘0도’ 언어는 존재하는 것인지 만약 존재한다면 과연 그 언어의 본래의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읽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 본다. 특히, 인간의 몸이 가장 주된 매개체인 무용은 무용수 개개인의 유일무이한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이나 언어로 묘사하거나 연구하는 게 쉽지 않다. 자문화기술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법으로 실기를 토대로 하는 학위 논문의 방법론으로써 그 정당성을 옹호 할 수 있다.

II . 자문화기술지

1. 자문화기술지의 이론적 관점

학술연구 관행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전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철학, 인류학, 신학, 사회학의 지식분야와 문학과 의 경계가 흐릿해 지고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를 중시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 전통적인 과학논문은 연구자 그들 자신을 연구에서 최소화 하도록 요구되어진다. 과학연구에서 연구자는 표면상 그의 성향과 주관성을 배제하고 멀리 떨어져서 연구과정을 바라보고 연구, 기술해야 한다. 실증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학연구는 ‘과학을 하다’라는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있고 과학이 아닌 다른 창조적인 분야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방법론을 무조건 따라서 연구되어야 한다. 대안 선택에 관한 지식이 없이 ‘진짜’ 과학은 양적, 실험적 방법으로 연구되어지며 실증주의 연구방법은 연구를 과학적 증거로만 방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삶’이 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포스트모더니즘시대 연구의 본질은 삶과 연구에 다양하고 많은 방법이 있으며 이들 모두 합법적이고 어느 하나의 방법이

가장 궁극적이거나 우선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와 기류로 인해 기존의 궁극적인 진리를 찾아야 하는 전통적 저술방법은 질적연구에서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반응으로 인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실험적으로 자의식적인 논술방법 사용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문화기술지적인 장르는 광범위한 주제가 정밀조사와 함께 다뤄지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학술연구에 새로운 형태로 접근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겨난 방법론중 하나가 자문화기술지인데 이는 자서전적 장르의 논술법이자 학술연구법으로 문화기술지ethnography와 자서전적autobiography 논술법의 혼합으로써 연구자가 타인에 관하여 연구하고 글을 쓸 때 연구자 개인의 삶의 경험의 요소를 포함하며Etherington, 2004:139), 사회와 문화 안에 속해 있는 연구자 자신의 자기 서사self-narrative 텍스트 형태이다. 참고로 자문화기술지는 방법론과 텍스트 모두를 지칭할 수 있는 단어이다.

자문화기술지는 개인과 문화, 그 연구자 자신을 문화적 문맥에 집어넣는 것을 의미하며, 이 방법론은 대부분 일인칭으로 쓰여 있고 연구자의 감정, 자의식 등을 문맥에 드러내며 사회구조나 문화, 정치 그리고 역사에 영향을 받아 생겨난 이야기를 연구한다. 그리고 대규모의 그룹을 관찰하여 탐구하는 것보다 더 깊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연구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주안점이 무엇이든지 간에 - 심지어 연구자 자신 단 한 사람을 주요 주제로 사용하더라도 - 연구자는 그가 살고 있는 문화 안에서 그의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반영하여 더 깊은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본다. 사실 과거 이십여 년 동안 자서전적 인류학, 자서전적 문화기술지, 자서전적 사회학 그리고 특히 자문화기술지를 통한 다양한 학술연구방법에 인상적인 성장이 있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과학 분야에 연구자 자신의 관찰과 분석에 더 관심을 갖는 주목할 만한 예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마침내 1979년 문화학적 인류학자 데이비드 헤이아노(David Hayano)는 자아 관찰self-observation로 설계된 문화기술지를 자문화적 연구방법으로 저술한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인류학자들은 문화기술지의 식민지시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구자들이 속해있는 사회와 소문화 혹은 하위문화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고 하였다(Anderson, 2006:376 재인용).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감춰져 있었던 연구자 자신의 위치를 오히려 드러내보고자 하는 유형이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자아self를 표면에 드러내는 실험적 방법론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학과 인류학, 민족지학에서 증가추세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통신학, 심리학, 여성학, 경영, 그리고 조직연구, 극장연구, 문학, 보건학, 교육학, 스포츠과학 등의 학문에도 널리 퍼져 나아가며 다분야의 학술연구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Ellis &

Bochner, 1996:32). 예를 들면 로라 제웁(Jewett, 2006)은 그녀의 박사학위 논문 “섬세한 무용: 자문화기술지, 커리큘럼, 그리고 친밀감의 걸모습A Delicate Dance: Autoethnography, Curriculum, and the Semblance of Intimacy”에 연구자 자신이 지테코Zydeco 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점을 자서전적 문체로 연구하였으며 사일라 바바(Saliha Bava, 2000)의 박사학위 논문 “공연의 형질전환: 포스트모던 커뮤니티에서 연구자 내적인 하이퍼텍스트적 여행Transforming Performance: An Intern-Researcher's Hypertextual Journey in a Postmodern Community”에 연구와 공연을 동일시하여 연구자 본인의 경험을 깊이 연구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녀는 내가 사용하는 서술하는 방식은 - 예를 들면 단어, 그래픽, 산문, 시 그리고 일인칭 대화 문장 같은 - ‘학술’논술 방법, 문학 그리고 예술의 경계를 불분명하고 흐릿하게 한다고 하면서 다양한 각도로 자신의 경험을 연구 분석 하였다(Bava, 2000:1). 이밖에 Margot Duncan(2004), Morgan Tanton(1994)도 자문화기술지를 사용하여 본인을 그 연구의 주된 자료로 사용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연구,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는 교육인류학연구에서 박순용, 장희원, 조민아가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적 가치의 탐색”에서 자문화기술지를 연구 분석하고 나아가 교육인류학에서의 활용도를 논의하였고 이동성이 초등교육연구에 “초등교과교육연구회 참여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라는 논문을 이 방법론을 통해 현장교사가 미시-정치학적 갈등과 딜레마를 분석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발생된 문화기술지적 논술법인 자문화기술지는 어느 특정한 문화의 이해를 확장하는데 연구자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탐구하여 고도로 개인화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다양한 작가나 연구자에 의해 명쾌하고 객관적인 답을 구할 수 없는 주제의 사회과학과 인문학에서 새로운 논문저술의 장르를 만들고 저술안의 연구자 자기반영을 높이며 사회과학에서 감정에 더욱 중점을 두어 연구하고 지식의 일반화에 혹은 궁극적인 지식의 진실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의심에 힘을 실어주는 변화를 가져왔다. 자문화기술지는 싸우스 플로리다대학University of South Florida에서 학생들에게 자문화기술지를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가르치는 카롤라인 엘리스와 오서 보크너Ellis & Bochner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오늘날 포스트모던 또는 후기구조주의의 개념과, 여러 학문 분야가 관련된 학제간의 상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옹호하는 연구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자문화기술지의 유형

자문화기술지의 사용 방법론은 주제선정, 자료수집, 자료 분석, 저술 등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주제 선정 후 자료수집을 했다가 다시 주제선정을 할 수 있고 저술을 했다가도 다시 어떠한 도출에 의해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엘리스는 자문화기술지를 왔다 갔다 하는 논술법으로 처음 시작은 연구자의 간단한 노트를 통해 넓은 각도의 문화기술지적인 렌즈를 통해 자신을 보고 먼저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의 걸모습의 사회와 문화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다음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통해 문화해석에 굴절(사회통념에 따라 자신을 맞추거나 따라감을 의미) 하거나 저항하는 연약하고 취약한 연구자 자신을 드러내고 폭로한다고 한다(Ellis, 2004:37-39). 연구자는 이러한 순서를 앞뒤로, 그리고 안과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과 문화 간의 구별을 흐릿하게 하고 때로는 그 구별을 넘어서는 깊숙한 연구가 가능하게 된다.

데보라 리드-다나하이(Danahay, 1997:2)에 의하면 자문화기술지는 아래의 세 장르의 논술법에 의거하고 있다.

- 1) 원주민 인류학native anthropology: 전에 문화기술학의 주제였던 사람들이 점 차로 그들 각자 그룹 연구의 연구자가 되는 것이다.
- 2) 민족 자서전ethnic autobiography: 소수의 민족그룹안의 멤버가 연구기록한 개인적인 묘사를 의미한다.
- 3) 자서전적 민족학autobiographical ethnography 자서전적 민족학: 민족학적 논술법에 개인적인 경험을 끼어 넣어 자신을 분석, 탐구하는 인류학자를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무용 실기토대의 연구논문을 위한 자문화기술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자신이 속한 어떠한 그룹을 연구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보다는 마지막 세 번째인 연구자 자신이 연구의 주제가 되는 자서전적 민족학을 다루기로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장르의 논술법에서 채택되어진 자문화기술지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텍스트를 사용하는 기존의 전통적 연구논문과는 달리 비논리적인 것으로서 반영하는 텍스트reflective-text, 느껴지는 텍스트felt sensing-text, 체현된 텍스트embodied-text, 자기성찰적인 텍스트introspective-text, 자신을 드러내는 텍스트self-revelatory text 등을 사용하나 분석, 묘사하고 또한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의 은유나 상징적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 논술법은 전통적인 연구방법론의 형식에서 벗어나 연구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분야 - 예를 들면, 시, 연극, 사진, 음악, 그림, 무용, 필름 등 - 를 연구의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즉 자문화기술지의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를 논리적인 글로써 ‘분석’하기 보다는 선명한 감각의 경험을 충분히 ‘보여’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형태로 쓰인 자문화기술지는 그 분석형태에 따라 크게 환기시키는 자문화기술지(evocative autoethnography¹⁾) 그리고 분석적인 자문화기술지(analytical autoethnography)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환기시키는 자문화기술지는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논문의 진리의 가치를 찾는 인식론적인 가정을 거부한다. 논리적인 분석을 배제하고 연구자와 읽는 이의 감정적인 반응을 생산해 내고 이를 연구의 중점으로 둔다. 엘리스(2004)는 자문화기술지는 문학적인 글쓰기와 표현의 전통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 형식의 특색은 사실에 의거한 행동, 감정, 전형(embodiment), 자의식 그리고 대화에서 묘사된 자기성찰, 성격묘사, 현장, 그리고 플롯으로 보여 진다고 하였다. 환기시키는 자문화기술지의 연구자는 어떠한 묘사나 이야기를 초점에 두어 대화나 어떠한 감정을 떠올리는 것을 열어주어 읽는 이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주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분석적인 자문화기술지는 광대한 사회적 현상의 발전된 이론적 설명에 초점을 둔다(Ellis, 2004:445). 환기시키는 자문화기술지는 그것을 읽는 이와 연구 참여자, 연구자에게 읽고 난 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그 가치와 타당성을 둔다. 또한 어떠한 객관적인 진리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신빙성을 찾는 것 이고 이는 읽는 이에게 연구자의 묘사된 경험은 실물과 똑같음, 믿을만함, 가능함이라는 느낌을 불러 일으켜 그로인해 인간의 삶의 경험을 알 수 있는 게 목적이다. 환기시키는 자문화기술지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연구논문을 읽고 읽는 이가 그들과 다른 타인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또는 삶을 살아가는데 또 다른 길을 보여주거나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반면에 리온 앤더슨(Leon Anderson, 2006)은 자문화기술지를 옹호하지만 엘리스와 보크너의 환기시키는 자문화기술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며 분석적 자문화기술지를 주장하였다. 그는 인상적인 성공을 보이고 있는 엘리스와 보크너의 환기시키는 자문화기술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자문화기술지가 무엇이 될 수 있을 지와 기존의 전통적 사회탐구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연구결과를 간과하여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비판하였다(Anderson, 2006:374). 그렇다고 그는 자문화기술지를 학술연구방법론으로써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환기시키는 자문화기술지에 비해 분석적 자문화기술지의 가치에 더 강조를 하며 자문화기술지를 분석적 연구의 실용적인 방법

1) evocative autoethnography에서 evocative는 사전적 의미로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혹은 ‘~를 환기시키는’의 뜻을 가진다. 즉 어떠한 기억이나 좋은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는 뜻으로 이 논문에서는 evocative autoethnography를 ‘환기시키는 자문화기술지’로 통일하기로 한다.

이라 하였다. 앤더슨은 엘리스는 연구논문에서 가치를 찾는 기존의 전통적인 분석적 문화기술지의 인식론적 가설을 거부하는 환기시키는 자문화기술지를 논문의 구조에 어긋난다며 비판하였는데, 그는 환기시키는 자문화기술지 연구자도 예를 들면 그가 주장하는 분석적 자문화기술지 같이 전통적인 사회학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는 환기시키는 자문화기술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무런 분석이나 근거적 이론 혹은 방법론적인 엄격한 적용이 없이 단지 연구자의 진정한 그의 목소리로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묘사하는 것을 통해 읽는 이의 감정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창조해 내는 것이라면서 분석적인 자문화기술지의 옹호를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자문화기술지 연구자들이 사회적 과정의 정체된 이론적 이해 혹은 해석을 진술하기 위한 그들의 경험적, 실증적 증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Go, 2011:21-24).

이 두 종류의 자문화기술지는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 세계를 바꾸는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더 나은 세계로 만들 수 있는가를 중점에 두고 연구가 행해지고, 이러한 부단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꺼내어 연구자 자신을 연구주체에 올려놓음으로 인해 어떠한 특정 문화나 사회에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는 통찰력을 준다는 것이다.

3. 자문화기술지의 방법론적 비판과 가치

자문화기술지에서 연구자는 전통적인 문화기술지와 같이 더 이상 객관적인 아웃사이드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라 연구자 자신을 그 연구의 가장 주요한 데이터로 선택하여 자기 자신을 연구 분석한다. 이 때문에 전통적 연구방법의 주요평가 잣대인 객관적 신뢰성과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나르시시즘의 연구방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간과 하고 있다.

첫째로 글을 쓰는 행위 자체는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이나 현상을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약속 되어있는 어떤 특정한 객관적인 단어로 바꾸는 일종의 공동체 활동인 것이다. 그렇지만 글을 쓰는 것은 비단 사회적으로 규범된 객관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그 단어 안에 내제되어 있다. 반 만넨(Manen, 1990:126)은 연구자는 텍스트를 생산해 내고 그는 텍스트 이상의 것을 생산해 내고 그 연구자는 그 자신을 생산해 낸다고 한다. 킴 에쓰링톤(Kim Etherington, 2004)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 심지어 과학 분야까지 포함하여 - 학술연구에서 저술을 하는 행동은 예를 들면 타인의 해석의 과정에 미치는

그 연구자에게 잠재되어 있는 문화적 구성토대, 그리고 연구자가 그 연구를 어떻게 의미하고 미리 가설 짓고 있는지에 대한 선입관 같은 주관성이 필수불가결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화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폴리야니(Polyani, 1966)는 학술연구에서 연구자 자신의 주관성의 중요성과 가치를 논의하였는데 그는 심지어 자연과학 실험 논문에서조차 절대 빠질 수 없는 연구에 대한 열정, 노력 같은 연구자의 개인적 감정, 주관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주관성이 객관성을 요하는 실험과 그것을 해석하는 텍스트에도 들어있으며 이것들이 연구논문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질적연구의 연구자는 능숙하고 전문적인 관찰자로서 객관적 타당성, 명료성, 정확성을 지닌 자격을 가지고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에 대한 것 - 타인의 경험을 포함한 - 을 직접 관찰한다. 연구자는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에 존재하는 실제의 주제 혹은 실제의 개인을 관찰한 후 연구자 자신의 이러한 경험들을 기록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각자의 관찰을 그가 인터뷰, 삶의 이야기life story, 개인적인 경험, 사례연구, 그리고 기타 문건들을 통해 획득한 주제와 함께 혼합되어 자가 기록을 제공하는 것이다.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 각자는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가 살아온 배경은 배일에 가려진 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정확한 관찰과 기록 그리고 결과를 보이도록 요구되어진다. 하지만 위 단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혼합과정들을 통하여 텍스트는 객관적인 모습을 잃게 된다. 즉 연구에서 아무리 자신을 빼려고 해도 이미 연구자 자신은 완전히 그 연구에 몰두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 자신을 연구의 주요주제, 상황에 따라 연구자가 그 연구의 단 하나의 데이터가 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방종self-indulgent, 자기도취 등의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개개인은 그가 살고 있는 문화와 사회와 동떨어져 볼 수가 없다. 개개인의 경험과 그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그 자신을 오직 단 하나의 연구 자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해 그가 살고 있는 문화와 역사, 교육, 사회 등을 모두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연구자 자신에 관하여 연구 분석, 기록하는 자가 묘사 형식은 연구자 자신을 매개자로 하여 그가 살고 있는 그 문화의 사회적인 문맥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판단과 의지, 의도, 그리고 그의 문화적 역사, 교육, 사회 등에 의해 같은 사건도 다르게 해석하고 본다. 현실reality은 인간 개개인의 시각이 토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자는 이에 따라 연구 분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해도 텍스트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쓰이고

관찰되고 지식으로 변환된다. 이러한 자문화기술지는 리드-다나하이(1997)에 의하면 연구자가 그 자신을 탐구하는 내부자의 텍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자의 텍스트보다, 다른 어떤 전통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자료수집과 분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 자문화기술지는 모든 연구에 가장 주요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방법론에서는 배제가 되어있는 연구자 자신을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연구하자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논술법은 기대되지 않은 주제를 연구하는데 유용한데 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전형적인 ‘보통’ 경험의 측면을 드러내어 ‘진짜’인간을 이해하는데 공헌을 하는 연구법이다. 즉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 개개인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논술형태를 통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학술 연구의 힘에 주안점을 두고 독특하고, 유일무이하며,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을 창조하여 개개인이 바라보는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III. 무용 자문화기술지

1. 무용의 경험적 특성과 자문화기술지

인간에게 움직임은 언어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쓰인 하나의 매개체였다. 언어가 다른 외국인을 만나도 움직임으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아 신체의 움직임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법 중의 하나로 사회적으로 규범되고 훈련되어 획득된 언어보다 어찌면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민족도 있지만 인간은 일반적으로 그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약속되어진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하고 있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무용에는 소위말해 어떠한 보편적 감동이 존재하는데 이는 예를 들면 명장의 작품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의 표현의도를 이해하기도 한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민족이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명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명장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고 언어가 다른 민족이 그의 춤을 봐도 똑같은 감동을 받고 이해한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음악은 악기가 있고 미술은 도구가 있으나 무용은 무용수가 그들의 몸을 가지고 표현

해낸다는 의미에서 유일 무일한 예술 형태라 할 수 있다. 물론 무용수는 음악, 무대장치, 의상 등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용하지만 가장 주된 표현의 도구는 무용수의 몸으로 만들어 내는 움직임이다. 즉 무용수는 그들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용의 메시지를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무용은 관객들이 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몸의 동작이 우선적으로 지각되어지지만 사실 무용수의 시점에서 보자면 그러한 동작을 무용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용수의 오랜 시간동안 누적된 경험과 함께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이 존재한다. 즉 무용수의 움직임은 그냥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무용수의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움직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무용수의 끊임없는 노력과 그의 의지, 감정, 열정 등의 혼합된 느낌들이 모두 경험되어 누적되어 쌓여 만들어낸 것이다. 많은 무용수, 안무가 그리고 무용학자가 이러한 느낌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이는 극도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무용수 각자의 내적 경험을 뜻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단어 하나 혹은 텍스트로 전환 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무대에 오르기까지 누적되고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무용수 각자의 각기 다른 경험들을 관객 혹은 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비논리적이고 보이지 않는 주관적인 가치를 연구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자문화기술지이고 이에 무용수의 내적 경험으로 이루어진 움직임이 주요 구성요소인 무용의 연구방법론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론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무용수뿐만 아니라 안무가, 발레마스터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인데 타인의 안무가의 안무성향을 연구 분석하는 것보다 연구자 자신이 자신의 안무를 자문화기술지로 탐구, 분석 그리고 기록한다면 더욱 광범위함과 동시에 자세히 타인에게 자신의 의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에코(1990)는 연구자가 그의 경험을 텍스트로 변환되어 보이는 순간 본래의 의미는 변질이 된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이론가들은 텍스트를 사용한 사람이나 그것을 읽는 사람에 따라 본래의 허용된 의미로만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복잡한 인간의 행동과 사회, 인문학을 한 묶음의 문장들로 모든 것을 전달할 수는 없을 뿐더러 또한 모든 이가 그것을 똑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어떠한 개인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 하나의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약 ‘무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어린 발레 전공자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면 그들은 무용은 곧 발레의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며 한국무용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무용을 논하면 바로 한국무용을 의미될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무용’이라는 객관적인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받아들이는 사

람의 개인적인 삶의 방식과 경험 등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지므로 그 의미는 이미 객관성을 잃게 되는 것이며 또한 분명히 실재하는 어떠한 대답을 그들로부터 얻어내기도 힘들 것이다. 이는 즉 지금 이 순간, 이 논문의 짧은 문장으로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것도 어렵다는 뜻이다. 형용사 ‘달다’라는 단어의 뜻은 알고 있지만 어떠한 음식의 달다는 수준의 지표가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그리고 음식을 섭취해본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그 음식이 달다고 명명되어지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똑같은 초콜릿 한 조각을 가지고도 A는 달다고 할 수도 B는 아직 달다고 느껴지지 않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달다’라는 단어를 읽거나 보았을 때 그것을 인지, 느끼는 정도는 개인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달다’라는 단어는 발화자가 의미하는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 특정사회 자체의 규율에 따라 텍스트로 정돈되어 의미가 생성되었을 뿐 그것을 받아들이는 독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 그 의미가 각기 달리 해석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라함 맥피(McFee, 1992)는 글을 쓰는 행위에서 글쓴이 ‘자신’의 중요성을 색깔을 사용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만약 연구자가 ‘이것은 빨강이다’라고 했을 때 이 빨강이라는 객관적인 단어는 듣는 이 혹은 읽는 이의 주관적인 색깔의 경험에 따라 그 농도와 채색은 달라질 것이다. 또한 만약 색맹인 사람이 ‘이것은 나에게 빨강색이다’라고 하고 또 다른 색맹인 사람이 ‘이것은 나에게 초록색이다’라고 한다면 이는 그 둘 모두에게 모순인 셈이다. 그들은 둘 다 그들 각자의 관점perspective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논문 그러므로 에코(Eco, 1990:28)가 주장한 바와 같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 받고 해석을 할 때에는 그 안에 내재하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도입시킬 수 있는 토대, 즉 수신자의 지적 구조 및 태도 - 그가 살아온 환경, 문화, 경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객관적인 텍스트를 사용한다고 하나 그 텍스트 안에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삶의 경험이 내재되어 있고 또한 해석되어지는 과정에서 읽는 이의 경험이 투영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숨겨져 있던 ‘나’를 문장 수면으로 내보이는 논술방법이 학계에서도 두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였고 이의 대표적인 연구방법론이 자문화기술지이다.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에 의하면 진실을 경험하는 순간은 인식자knower의 존재가 그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맑은 감성이 창출하는 것의 도용의 순간이라고 하였다 (Barr & Lewin, 1994 재인용). 즉 무용수가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을 타인이 알 수 있는 건 만무하고 무용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이러한 무용의 특성상의 이유로 알맞은 연구방법론의 선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이러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무용수 각자의 경험의 느낌을 객관적인 언어로 기록하고 입증할 것인가? 어떻게 움직이

는 신체가 주로 이루어내는 무용을 객관적 글로써 이론화를 시킬 것인가? 어떤 저술형태가 무용수 각자의 내적 경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해 낼 수 있을까? 무용수 자신이 연구의 주요주제가 되어 분석하는 자문화기술지를 사용하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정의내리기 힘든 무용을 구하는데 한 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문화기술지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힘들고 학술논문의 기록에 분석, 묘사하기 힘든 주제에 연구 분석 방향을 제공해 준다. 다시 말해 자문화기술지는 무용수의 보이지 않는 경험의 느낌 같은 비논리적이고 어떠한 단어로 정의내리거나 자세히 설명하기 보다는 암시에 가까운 주제를 기록, 분석 연구 할 수 있는 테크닉을 제공하고 학술연구에 그 가치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2. 무용과 언어적 해석

사실 문화기술학은 연구방법론으로써의 그 광범위한 역사가 1900년대 초 인류학자들의 연구와 함께 시작하였다. 그 시기에는 민족학자들은 원시사회의 사람들의 삶을 묘사하면서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그 원주민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가장 큰 중요성을 두었다. 문화기술학자들은 몇 년씩 그 문화 안에서 거주하며 외부인 입장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그 사회와 문화를 그들이 처한 연구 환경과 상황에 따라 참여하는 것을 통해 이해하고 그 연구 상황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내부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논의 되면서 21세기에 민족학적 연구 접근방법은 포스트모던 학술세계의 문화에 성공적으로 동화되기 시작하였다. 지식의 형태에는 누구의 것도 궁극의 참이 있는게 아니며 다수의 관점이 가치 있게 인정된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감성에 맞게 타인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공존하려는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려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전 단락에서 전통적인 질적연구 민족학에서는 그의 연구논문 텍스트 안에 연구자 자신은 배제되어 있다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사실 민족학은 연구자의 관찰 - 필수 불가결하게 연구자 자신이 체화된 활동(Coffey, 1999:59) - 로 탐구되어진 현장연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로 인한 오류가 생긴다. 연구자가 외국인이고 한국무용수의 '신명'에 관하여 연구하고 싶어 한다고 예를 들어보자. 연구자는 한국무용의 일반적인 자료들을 문헌조사로 먼저 수집할 것이고 한국무용을 관람하고 그들을 인터뷰 할 것이다. 그 후 연구자는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구자 자신이 이해한대로, 인지한대로, 해석한대로, 본대로, 그리고 이야기 들은 대로 자신의 연구과정을 기록, 작성하고 탐구하여 결론을 내릴 것이다. 다시 말해, 문장에는 '나'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는 않지만 내가 생산해내고, 내가 만들어 내는

사실상 ‘나’는 문장을 만들어 내는 모든 곳에 들어있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는 타인에게 인터뷰를 행할 때 이 ‘신명’이라는 무용수가 매우 개인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이 특별한 느낌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의 문제점에 봉착될 것이다. 연구자는 ‘신명’이라는 느낌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무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느낌을 밀접하게 조사할 수 있는 알맞은 질문을 만들어 내어 정보자에게서 어떻게 핵심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이끌어 낼 것인가? 특히 그 주제가 ‘신명’같은 정보자의 내적 경험에 관한 것이라면 어떻게 타인의 경험을 내가 알고 질문하고, 분석, 데이터를 생산해 내겠는가? 더하여 정보자가 모든 정보에 진실로 대답하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연구자는 정보자가 대답한 모든 것을 믿고 분석해야 할 것인가?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정보자는 진실적인 대답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 낼 것인가? 만약 연구자가 정보자에게 들은 것을 모두 믿는다 하더라도 연구자의 조사와 질의에 가장 알맞고 관계가 밀접한 답안을 수집했다고 만족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연구자가 경험하지 못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장 밀접하고 핵심답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더하여 어떻게 정보자에게 오직 무용을 할 때만 일어나는 그 ‘신명’을 느꼈을 당시를 가장 잘 기억해 낼 질문을 찾을 것인가? 다시 말해 정보자가 ‘신명’을 실제로 경험했을 때의 순간과 연구자에 의한 인터뷰 사이에는 이미 시간차가 있는데 정보자가 연구의 주제를 경험하고 그것을 연구자가 다시 수집하며 그 후 저술의 형태로 되는 데는 이미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고현정, 2012:217-218).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 개인의 무용에 관해 연구하는 하므로 그들이 그 주제에 관해 경험하는 바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메모하는 등을 통해 이러한 시간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용수의 내적 경험, 혹은 춤추는 몸을 연구 분석하고 논술을 한다는 것은 몸의 지식에 관한 것이므로 굉장히 어렵다. 레베카 사치스 노리스(Norris, 2002)는 이 몸의 지식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를 논의하였는데 그는 몸의 지식은 한순간에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사회, 문화, 역사, 정치, 교육 등 모든 환경과 함께 축적되고 반복을 거듭하여 그것들이 축적되어 단단해 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타인이 분석하는 것보다 연구자 자신이 자신을 주요주제로 한다면 더욱 깊이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IV. 결론

최근에는 많은 학술 연구자들이 연구를 관찰의 해석에 내포하는 수사법, 편견, 경험들의 존재에 강조를 하고 있고 그들을 다른 많은 수치기상자료와 일치하는 가치로 보고 하나의 학술논문이 해석이나 은유로 구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논문은 어떻게 그 자료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였고 객관성의 걸보기, 실증주의 파라다임의 지배적인 성향으로부터의 자유, 주관성에 더 많은 중점을 두어 기존의 연구방법론의 지지에 붕괴를 가지고 왔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방법론은 어찌되었건 비평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동적으로 실패된 연구방법론으로 거부당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목표는 전통적인 과학연구방법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방법의 지식의 획득과 나눔이 가능하다는 것을 즉 여러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미 확립되어져 있는 모든 질적연구, 양적연구에서 가설의 문제점이 논의되어지고 이는 즉 이미 확립된 모든 연구방법론과 그 연구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의 미리 예상된 가치나 이론, 관점, 편견을 버리라고 장려되어진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이르러 비평적인 이론이 생겨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학술연구에서 가능한 연구계획의 범위를 넓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움직임에서 탄생된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학술연구자들은 과학 패러다임에 질문을 제시하였고 삶에 대한 또 다른 길을 보여주었으며 유일무이하고, 주관적이고, 어떠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경험적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 공유하는 힘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관점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기여를 하고 인간 개개인의 살아온 것, 배운 것, 성격에 따라 얼마나 다른 눈으로 사회를 보고, 해석하고, 반영하는지를 보여준다. 무용은 인간의 몸으로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주요 구성요소로써 객관적인 수로 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즉 무용이 어떠한 객관적인 잣대로 혹은 일반적인 진리에 빗대어 가치가 있다거나 평가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무용은 음식이나, 물, 공기 등 인간의 삶에 긴급히 필요한 요소와는 다르다. 그러나 무용은 전 세계 인간문화에 모두 존재하며 심지어 찰스다윈에 의하면 하등생물의 구애행동에 동물의 춤과 움직임을 포함한 ‘예술적인 활동’이 있다고 하듯이(Darwin, 1899:410) 동물의 생존세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생물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용은 인간의 삶에 항상 공유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무용수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결과물인 것인데 이렇게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이해를

요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조사되어진 것과 경험적인 관찰 그리고 사회와 문화마다 다른 정치적 진실간의 상호의존의 복잡한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무용수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신을 연구 분석하는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방법론과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그 학문적 적용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문화기술지는 리드-다나하이에 의하면 원주민 인류학, 민족 자서전, 자서전적 민족학의 세 장르의 논술법에 의거하여 쓰여진다. 특히 자서전적 민족학은 연구자 자신을 연구의 주요주체로 삼아 진본의 목소리로 기존의 연구법보다 깊은 연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간과되기 쉬운 인간의 인생경험을 보여주어 인간 개개인이 얼마나 다른 눈으로 이 세계를 보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는 또한 연구 주체가 연구자 자신 한사람이라는 이유로 신뢰성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자문화기술지는 단지 자서전적 이야기가 아니라 이를 통해 읽는 이가 그 연구자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문화, 정치, 역사 등의 다양한 분야의 분석이 가능하거나 혹은 연구의 방향에 따라 읽는 이에게 감정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등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

둘째, 자문화기술지는 실증주의 기반의 기존의 연구논문과는 다른 텍스트를 - 예를 들면, 반영하는, 느껴지는, 체현된, 자기성찰적 텍스트 - 사용하여 실기를 토대로 하는 연구방법과 같이 연구과정을 중시하는 존재론적 배경에 중점을 둔다. 즉 자문화기술지는 논문을 통하여 어떠한 논리적이거나 객관적인 결과물을 추출해 낸다기 보다는 그 연구과정이 실증주의 논문의 결과물과 동일 시 되어 그 학문적 가치와 정당성을 주장 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다.

셋째, 이러한 텍스트를 가지고 연구된 자문화기술지는 크게 환기시키는 자문화기술지와 분석적인 자문화기술지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방법 모두 기존의 연구 방법론적 형식이나 틀에 도전한다. 특히 전자는 어떠한 논리적인 분석을 배제하고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이며 은유적인 표현방법으로 선명한 감각의 경험을 보여주어 읽는 이가 연구자의 삶의 경험에 깊이 침투가 가능하여 이로부터 감정적인 공감을 부르는데 의의가 있다. 후자인 분석적인 자문화기술지는 이러한 연구자 자신을 연구하되 기존의 인식론적 배경의 연구방법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자들의 경험적, 실증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용분야에서 보았을 때 전자는 철저히 연구자의 감정적, 창의적, 경험적 느낌 등의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을 깊고 진실된 언어로 탐구하기에 적절할 것이고 후자는 연구자 자신을 분석하되 객관적이고 논증적인 증거 등이 필요로 하거나 결과물로 보여주어야 하는 연구에 적합할 것이다.

모든 견해가 논리적으로 타당해야만 하는 학술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논증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연구자와 그 개인적인 주제와의 관계의 진실이 연구의 새로운 주요 안건이 되었다. 연구의 주제로써 아주 특별하고 유일무이하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는 ‘개인’은 엄격하게 극단적인 학술상의 연구법 정당성에서 일종의 혼합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와 활용으로 새로운 길을 안내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연구자는 규범적인 패턴을 추구하는 것은 학술상의 특권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실기를 토대로 하는 연구같이 혼란스러운 패턴을 선택하는 것은 연구자와 연구 간의 구별에 관한 기존의 개념에 저항을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연구방법론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연구자 자신을 탐구, 분석하는 자문화기술지에 대한 당위성과 그 학술적 적용방법을 논의해 보았고 나아가 연구자 자신의 작품을 분석하는 무용 실기토대의 박사연구논문에 적절한 연구방법론으로 보고 무용분야에서의 적합성을 논의하였다. 자문화기술지의 기능은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연구실기와 연구를 하는 과정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차후 존재론의 바탕을 둔 실기박사연구논문의 필요성과 그 진리가치의 정당성을 깊이 있게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즉각적으로 자신의 깊숙한 곳의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이 방법론으로 안무자나 무용수가 언어로 표현해 내기 힘든 내적 경험인 자신의 춤 세계를 연구한다면 무용 기록이나 사후 보존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고현정(2012), “학문적 커뮤니티상의 자아 재배치“,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3집 제1호**, 213-225.
- 박순용, 장희원, 조민아(2010),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적 가치의 탐색“, 한국교육인류학연구, **교육인류학연구 제13권 제2호**, 55-79.
- 이동성(2010), “초등교과교육연구회 참여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한국교육인류학연구, **교육인류학연구 제13권 제3호**, 141-168.
- Anderson, L.(2006), Analytic Autoethnography,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35 (4) 373-395.
- Barr, S. and Lewin, P.(1994), Learning Movement: Integraing Kinesthetic Sense with Cognitive Skills, *Dance Research Journal*, 28 (1) 83-94.
- Bava, S.(2000), *Transforming Performances: An Intern-Researcher's Hypertextual Journey in a Postmodern Community*, Dissertation in partial fulfilment of PhD.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Blacksburg:VA.

- Coffey, A.(1999), *The Ethnographic Self: Fieldwork and the Representation of Identity*, London:Sage Publications.
- Darwin, C.(1899), *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 2nd Edition, London:Murray.
- Duncan, M.(2004), Autoethnography: Critical Appreciation of an Emerging Art,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 3 (4) 2-14.
- Eco, U.(1990), 김광현(역, 1995), **해석의 한계**, 서울:열린책들.
- Ellis, C.(2004), *The Ethnographic I: Methodological novel about autoethnograph*,. CA:AltaMira Press.
- Ellis, C. & Bochner, A. P.(1996), *Coping Ethnography: Alternative Forms of Qualitative Writing*, London:Altamira.
- Etherington, K.(2004), *Becoming a Reflexive Researcher: Using our Selves in Research*, London and Qualitative Philadelphia:Jessica Kingsley Publishers.
- Freeman, J.(2010), *Blood, Sweat & Theory: Research through Practice in Performanc*, London:Libri Publishing.
- Go, H. J.(2011), *A State of Transcendence in Dance: An Autoethnographic Analysis*, PhD Thesis, London:Brunel University.
- Holt, N.(2003), Representation, Legitimation, and Autoethnography: An Autoethnographic Writing S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2 (1).
http://www.ualberta.ca/~iiqm/backissues/2_1/pdf/holt.pdf
- Manen, V.(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McFee, G.(1992), *Understanding Dance*, London:Routledge.
- Jewett, T. M.(2006), *A Delicate Dance: Autoethnography, Curriculum, and the Semblance of Intimacy*, PhD Thesis, Oklahoma State University.
- Norris, R. S.(2002), Embodiment and Community, *Western Folklore*. 60 (2-3) 111-124.
- Polyani, M.(1966), *The Tacit Dimension*, London:Routledge Kegan Paul.
- Reed-Danahy, D.(1997). *Auto/Ethnography: Rewriting the Self and the Social*, Oxford and New York:Berg.
- Tanton, M.(1994), *Power/Knowledge in Self-directd Learning: An Autoethnography of a Tutor's Experience*, PhD Thesis, University of Lancaster.